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4차)

1. 일 시 : 2013.01.22(화) 16:20 ~ 18:15

2. 장 소 : 대학본부·경영관 308호

3. 참 석 : 8명(위원장 정태준, 위원 박종환, 위원 최인수, 위원 문귀민,
위원 박정복, 위원 강인호, 위원 김진호, 위원 이채연)

4. 불 참 : 0명

5. 회의안건 : 1.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

2. 2013학년도 시설비 예산

3. 2013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예산

4. 일반대학원/복지산업대학원 등록금 책정

◆ 위원장 정태준

1,2,3차 회의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예산과 시설비예산 등 많은자료를 질의하고 검토하였다.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하였다. 오늘 회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하고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라고 묻다.

◆ 위원 문귀민

등록금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먼저 학생들이 가져온 연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 어찌한가라고 묻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일단안건부터 처리하는게 우선이다. 시간단축을 위해서 등록금에 관해서 먼저 의논 했으면 한다.

◆ 위원 문귀민

1월 21일 예산기획팀을 방문하여 2013년 예산과 시설비현황, 적립금현황, 법인전 입금현황등 충분히 원하는걸 보았고 학교에서 각종공시지표 및 재학생충원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7.1%의 인하여력이 있기에 등록금 3% 인하를 제시한다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생각에 온도차가 많은거 같다. 3차회의때 2011년 대학감사결과에 의한 7.1%의 인하여력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수한예로 일반화시키는 것은

곤란하다. 2012년 등록금인하 가이드라인이 5%였고 우리는 5.1%를 인하하였다. 이해해달라. 3%를 인하하게 되면 2013년도 하고자하는 각종 중요사업들이 배제되어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도 어렵기에 만족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.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대학의 처해진 상황도 고민해줬음한다. 학생측에서 제시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겠다. 3%인하는 어렵다고 하다.

◆ 위원 문귀민

2013년 예산이 현재 112억 초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달라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TU 2020 장단기발전계획에는 학생들의 만족도, 교육프로그램, 시설환경 등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행가능한 것이 무엇이나에 초점을 두고 예산요구를 받았다. 그 중에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지만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내용들이다. 불요불급한 내용들은 조정할 예정이며 기대효과, 목표성과 까지 챙기기위해 올해 성과관리팀도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것이다라고 하다.

(예산기획팀장 : 특별예산으로 총154억이 요구되어졌다. 그 중 55억정도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99억은 일상적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조정을 거칠 것이다. 본예산만 본다면 57억정도 초과하였는데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 지출예산에서 어떤식으로든 조정할 수 밖에 없다)

◆ 위원 문귀민

등록금인하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하로 인한 부분은 적립금에서 사용하면 되지않는가라고 묻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현재 TU 2020 장단기발전계획을 위해 필요하면 적립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. 그리고 모두 목적성 적립금이며 사용할 경우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집행자체도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. 단순히 당해연도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한 투입은 승인받기 힘들며 2016년 이후 학교의 위기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적립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다.

◆ 위원 이채연

기업관점에서 본다면 적립금은 기업의 자본이다. 생존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립금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금인하 재원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학교는 이익을 남기는 영리법인이 아니다. 학교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. 등록금 및 등록금의 모든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절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대해 나갈 것이다. 그리고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학교측 입장, 학생측 입장, 사회적여건등을 고려해서 학교측이 동결을 제시한 것 아니 이해해달라 라고 하다.

◆ 위원 박정목

학교를 불신하는거 아니다. 타대학 사례 중요하지 않다. 많은 자료를 보면서 학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 입장으로서는 등록금인하요구는 당연한 것이다. 등록금을 동결할 것 같으면 학생측이 제시한 연간사업계획서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학생측의 입장 이해한다. 학교입장에서는 적정규모의 교육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다.

◆ 위원 최인수

등록금을 동결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사업계획서를 알찬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의논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다.

17:20 정회하고 17:30에 재개함

◆ 위원 박중환

학생복지를 최우선 해야겠지만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으로 동결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봄서 동결을 해야한다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학생과 학교는 동반자적 입장이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를 신뢰해줬음 하고 알차고 활성화된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건 모두 지원하겠다.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경쟁력이 제고되고 학생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.

◆ 위원 김진호

사업계획에 학내문화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다.

◆ 위원 최인수

학교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학생측이 제시한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학생측의 입장을 이해한다. 다시한번 학생측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다.

◆ 위원 문귀민

교수평가제 학생들 열람을 가능도록 해주시고 모든 교직원, 학생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동명대학교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교육분야, 취업률, 재학생충원율을 높일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1안 201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안에 동의하느냐고 위원들에게 묻다.

◆ 위원일동

동의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2안 2013학년도 학교시설비 예산에 동의하느냐고 묻다.

◆ 위원일동

동의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
3안 2013년 사학연금 교직원 범정부담금은 1,271,700천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685,000천원은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질 범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하며 586,700천원은 학교부담으로 예산편성되어질 예정이다. 최종적으로 교과부에 학교부담승인신청시 금액이 변동될수 있는데 변동되면 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행정상으로 재심의는 번거로움으로 금액변동에 대한 재심의는 따로 하지않고 이 자리에서 학교부담 승인신청시 금액변동에 대하여 학교를 믿고 위임해준다면 좋

겠다라고 하며 3안 2013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예산에 대해 위원들에게
동의하느냐고 묻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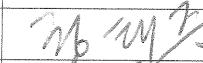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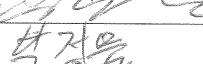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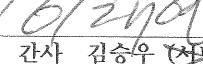
◆ 위원일동
동의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4안 일반대학원/복지산업대학원 입학금 동결, 수업료 동결안에 동의하느냐고 묻다.

◆ 위원일동
동의하다.

◆ 위원장 정태준
폐회를 선언하다.

폐회시간 18:15

소속	직위	성명	서명
기획처	처장	정태준	
학생처	처장	박중환	
사무처	처장	최인수	
총학생회	회장	문귀민	
총학생회	부회장	박정목	
총대의원회	의장	강인호	
총동창회	부회장	김진호	
전문위원	세무사	이채연	

간사 김승우 (서명) 